

현대패션에 나타난 Anti Couture 경향 연구

변영희[†]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A Study on Anti Couture in Contemporary Fashion

Young Hee Byun[†] · Keum Se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09년 3월 4일), 수정일(2009년 4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4일)

Abstract

This study finds the meaning of Anti Couture in the examination of the tendency and characteristics of aesthetics sense of Anti Couture in Contemporary Fashion. Anti Couture disregards the traditional composition and takes some subcultural elements, moreover, have the Anti-decoration characteristics of disproportion, disharmony, asymmetry, imperfection, and irregularity such as Japanese fashion. This study analyzes 600 works from 2000 S/S to 2008 S/S to figure out the Anti Couture to summarize the eclectic, humorous, avant-garde, poor, and minimal tendenc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esthetics sense of Anti Couture according to the tendency are analyzed into ambiguity, deformation, eclecticism, deconstruction, and artless art.

Key Words: Anti Couture, Ambiguity, Deformation, Artlessness; 안티꾸뛰르, 모호성, 몰형식, 탈기교

I. 서 론

21세기 하이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Anti-mode적 경향은 절대적 가치인 정형미, 우아미, 정제미의 추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 시 되었던 하위문화와 추(醜)·빈곤 등 주변 및 비주류 문화를 수용하려는 적극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패션에 있어 해체·분해·왜곡·재생산을 통한 이질적인 반대 성향으로 표출됨으로써 네오 포바티즘(Neo-povertism) 및 안티꾸뛰르(Anti Couture)적 표현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콤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의 패션에 나타난 불균형, 부조화, 비대칭, 부정형성은 Anti Couture의 주된

특징으로 이는 1970년대 오프꾸뛰르(Haute Couture) 산업의 침체 및 그 존재감이 희박해지면서 전통적인 클래식 스타일에서 벗어난 안티꾸뛰르가 주류로 떠오르게 된 것이라 하겠다(채금석, 千村典生, 2003).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실험적·차별화된 이미지를 추구하려는 동서양 출신 디자이너들에 의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 영역을 넘나드는 제 3의 이미지 추구 및 창의적 성향을 반영한 멀티 모드적 감각으로 표출되면서 기존의 패션개념을 무너뜨리는 모호성(Ambiguity)과 불확정성(Indeterminacy)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이 가진 내재적 자율성과 주변 요인에 의한 외부적 타율성은 패션이 변화해온 속성으로서 21C 패션은 시대의 보편적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철학의 실현을 위해 시공(時空)을 초월한 이상향 추구와 각 영역의 경계를 해체하는 열린 개념의 접근이 요구되는데, 고급기성복(Prêt-à-Porte)을 비롯해 대중패션에까

[†]Corresponding author

E-mail: yohee2@hanmail.net

본 논문은 200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Haute Couture에 대한 연구가 몇몇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경향 연구에 그친 점 등을 볼 때 Anti-mode적 측면에서의 비교접근은 복잡 다양한 패션현상을 이해하는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의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프꾸뛰르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반미학(反美學)적 경향인 Anti Couture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하며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Anti Couture의 개념과 발생배경을 밝힌다.

둘째, 21세기 오프꾸뛰르에 나타난 Anti Couture적 경향과 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Anti Couture의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오프꾸뛰르의 복잡 다양한 융합화현상이 서양 미학의 한계를 벗어나 동양 미학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현대의 다문화현상이 통합적 사고체계를 갖는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기존의 발표 논문 및 미학, 예술학, 의류학 등의 서적 및 보도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와 2000년 이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Haute Couture 디자이너 작품 중 불균형, 부조화, 비대칭, 부정형의 Anti Couture적 요

소를 지닌 시각자료 '600여점'을 선별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단, 사진자료 선별 시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의류학 전공자(박사 이상) 10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Haute Couture

19세기 중엽 워스(C. F. Worth)에 의해 창시된 Haute Couture는 최고급 소비지향문화로 본질적 아름다움인 정형적 라인과 격조 있는 우아함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Haute Couture의 독창적 예술성은 시대적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며 조형적 균형미를 창조적으로 실현해왔다. 20세기 이전 유미주의의 아르누보(Art Nouveau)적 예술사조로 인해 곡선적 장식성이 지배적이었던 경향<그림 1(1)>-<그림 1(2)>은 1920년대 모더니즘의 아르데코(Art Deco) 영향 하에 구조적·기하학적·추상적인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었고<그림 1(3)>-<그림 1(6)>, 그 후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합리적 기능주의, 디자인의 상업화에 따른 절제된 디자인 등 20세기 전반은 특정 라인이 정립된 창조적 시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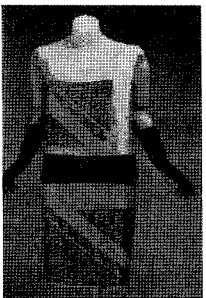
(1) C.F. Worth, 1887 Ball G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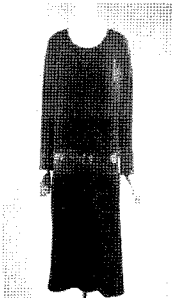
(2) Paquin, 1903



(3) Callot, 1910 Evening gown



(4) Lanvin, 1924 Dinner dress



(5) Gabrielle Chanel, 1930



(6) Christian Dior, 1951 Oval line

<그림 1> Haute Couture

이에 반해 1960년대 이후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다 복합적인 아방가르드(Avant-Garde)양식이 예술 전반에 표현되기 시작하는데(공미선, 채금석, 2003), 이는 현재까지도 무한한 독창성(Originality)과 예술성을 지향하는 Haute Couture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실험적·반미학적 경향인 Anti Couture의 모태가 된다 할 수 있다.

2. Anti Couture 패션

1) Anti Couture 패션의 개념

안티(Anti)란 반대, 배척, 대항의 뜻으로 전 시대의 전통적 엘리트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굿 디자인(Good Design)에 반대하는 안티디자인(Anti Design) 및 전통의 부정을 주장한 20세기 예술사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복식 개념을 거부, 전위적인 감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배문화에 저항하는 안티패션(Anti Fashion) 등 과거의 모더니즘을 부정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Anti Couture란 디자인에 있어 기존의 전통 구성법과 기능을 무시하고 전위성을 부여 또는 저항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Couture이자 일본패션에 나타난 불균형, 부조화, 비대칭, 부정형, 불완전, 불규칙성 등의 반꾸밈적 특징을 포함한다(채금석, 千村典生, 2003), Anti Couture 패션의 발생 구조를 살펴보면 위의 <표 1>과 같다. 안정된 균형과 절도 있는 조화를 특색으로 하는 고전주의 양식의 Haute Couture와 달리 Anti Couture는 이와 대립된 풍부한 대비효과와 동적·불규칙적인 바로크적 특성을 갖는데, H. 윌플린(Wölfflin)은 그의 『미술사 기초개념(1915)』에서 고전주의와 바로크양식을 각각 직선적이며 회화적인, 평면성과 입체성, 통일성과 다양성, 폐쇄성과 개방성, 절대성과 상대성의 대립개념으로 분석하면서 바로크를 완벽한 조화 대신 움직임과 변화의 추구 및 무한한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다니엘 라쿠트, 2001/2007). 즉, 클래식은 디자인의 정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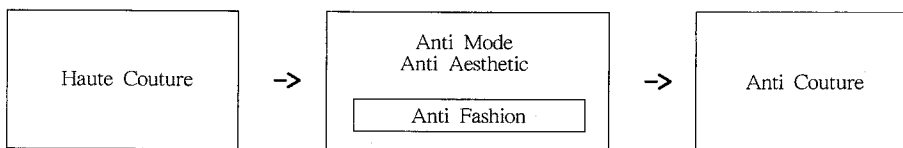
완벽성, 통일성, 명료성 등 이성중심의 아폴론(Apollon)적 성향을, 바로크는 불규칙성, 개방형, 다양성, 양면성 등 감성에 기초한 니체의 디오니소스(Dionysus)적인 것과 상통한다할 수 있으며(채금석, 2002), 이를 미추와도 연관해볼 수 있다. 예술이 이념의 현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미와 부정적인 추(醜)가 서로 공존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로젠클란츠(Rosenkranz)의 주장대로 Anti적 측면에서의 추는 미적 인상에 활기를 주고, 전체의 생명감을 높여주는 자극제가 된다. 특히 1980년대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Anti Couture파 일본디자이너들은 서구의 전통 미학인 꾸뛰르의 장인적 기술에 의한 구성미를 무시하고, 좌우비대칭·불규칙·울퉁기·꼬기·비틀기·구기·위싱·구멍내기 등의 가공을 통한 의도적 미완성과 이질적 요소의 배치를 통해 독특한 미학을 탄생시켰는데(채금석, 千村典生, 2003), 프랑스의 피가로지(志)는 이들을 미래를 어렵게 하는 스노비즘(Snobbism)이자 종말을 암시하는 일종의 페시미즘(Pessimism)의 미학이라 하여 비판하기도 했다.

2) Anti Couture 패션의 출현배경

(1) Haute Couture 산업의 침체 및 변화

한 세기 반 동안 격조 있는 우아함과 정제된 라인을 창조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최고급 소비지향문화로 평가받아온 Haute Couture는 1950년대까지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제된 구조적·기능적 조형미의 우아한 스타일을 정립해왔으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50~60년대를 기준으로 급격한 역전 양상을 보인다. 급변하는 패션산업의 생존전략으로 시행한 라이선스(License) 정책과 대중의 인수·합병 및 프레타포르테 산업은 세련된 품격과 가치를 지닌 Haute Couture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 시기에 출연한 다양한 예술사조의 혁신적 분위기는 대중문화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아방가르드적 이미지가 병존하는 절충주의와 혼성양식을 야기시켰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 나타난 Anti Mode적

<표 1> Anti Couture 패션구조



경향을 Anti Couture와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Haute Couture의 부정이 아닌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또 다른 표현방식으로 고품격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고수해 오던 Haute Couture 산업의 변모 과정은 그 동안 평가절하 되어온 주변문화의 저력을 실감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Paradigm)이란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사고·가치관·이념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성·발전·쇠퇴·대체를 반복하는데, 오늘날은 근대의 기계론적, 결정론적, 정량적,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닌 유기론적, 비예측적, 정성적, 다원론적 세계관의 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이해현, 2007).

21세기는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장르가 융합·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민족, 문화, 계층에 있어 주류와 비주류의 차별적 관점보다는 모든 문화가 주류로 위치하는 다문화적 공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지배적·우월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각각의 단편들이 조합, 중첩, 병치되어 새로움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양상을 띄는데(김경란, 2004),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미의식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① 반미학적 개념의 적극적 수용

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반미는 추와 유사한 개념으로 고대 부정적·소극적 의미였던 추 개념이 헤겔(G. W. F. Hegel)의 변증법적 절대정신 속에서 정(正: Thesis), 반(反: Anti-Thesis), 합(合: Synthesis)의 예술정신으로 지향되고, 18세기 말 로잔크란츠(Karl Rosenkrantz)에 의해 적극적인 미로 수용되면서 근대 미학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반미적 경향인 안티

패션은 한 사회 내에서 이미 확립된 패션과 달리 차별화의 욕구에서 비롯된 양식이자 지배문화에 저항하는 하위문화의 일부분으로 이들이 가진 상징적 요소는 지배문화에 영향을 주어 유행을 창출하거나 순응을 거부하는 자들의 공간은 재구성된다(Caroline & Minna, 1989). 즉, 지배적 가치나 윤리로부터 배격되거나 주류문화로부터 이탈된 것 등 이질적 문화로서의 하위문화(임은혁, 김민자, 2003)는 상황 전파되는 특징과 함께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특히 역사성을 무시한 혼성모방(Pastiche)이나 스트리트 스타일의 절충현상은 내면의 저항적 요소나 정체성은 사라진 채 하이패션에 통합되는데, 이는 거리문화의 다양성과 대중문화의 확산 및 반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추구라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민원경, 2002).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어온 특이하고 기괴한 반미적 대상들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감성을 표출하는데, 여기서 반미학이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의 추구이자 전통적인 미적 준거들의 의식적 파괴 과정인 열린 개념의 사유를 의미한다(정진영, 2002).

② 통합적 가치체계로의 전환

20세기 전반 전통과의 단절을 통해 실험적 예술형태를 추구했던 모더니즘(Modernism)은 이성과 합리성을 기본개념으로 패션에 있어 인체의 형태를 무시한 직선적 단순형 및 장식의 배제 등 혁신적 조형질서를 모색했다.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관습적 양식의 탈피와 새로움의 창조라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오뜨꾸뛰르의 전형적 양식을 파괴·독특함을 추구하는 시도이자 전통 장르의 혼합·붕괴에 따른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확산 및 패션에 있어 카테일효과를 양산시킴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 부와 빈, 정숙성과 비정숙성, 합리성과 비합리성, 미와 추 등 모든 양면 가치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채금석, 2002). 이후 아방

<표 2>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른 미의식의 변화

구분	20세기 중반 이전 <Haute Couture 위주>	과도기 <Haute Couture 변질>	20세기 중반~21세기 <Anti Couture 출현>
예술사조	아르누보, 모더니즘, 아르데코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미적 가치	절대적 가치	절대적+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
특성	기능성, 대중성 단순성, 합리성	전위성, 혁신성	다원성, 복잡성, 절충성, 비논리성, 모호성
헤겔의 사유	정(正: Thesis)	반(反: Anti-Thesis)	합(合: Synthesis)
사고체계	결정론적 세계관 단한 개념 아폴론적(이성 중심)	가변적 세계관 열린 개념 디오니소스적(감성 중심)	유기적 세계관 아폴론적+디오니소스적 (이성+감성)

가르드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데 이는 모더니즘의 부정이 아닌 모더니즘과의 차이를 인정, 변화와 새로움을 수용하려는 초미학의 열린 개념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주체의 탈중심화(Decentering)와 대중주의(Populism)를 핵심 명제로 과거 엘리트주의 및 이성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논리적 차원으로서 냉정한 사상과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는 아폴론(Apollon-평온, 질서, 이성(Logos))과 달리 유기적 세계를 지칭하는 동적 차원으로 유연하고 불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디오니소스(Dionysus-활기, 강렬함, 감성(Pathos))적 성향을 띤다. Nietzsche는 비극의 탄생(Die Geburt der Tragödie)에서 감성을 중시하는 디오니소스적 영향 하에서는 억압된 자연이 인간과 결합되어 삶에 역동성과 활기를 부여한다고 하여 포스트모더니즘 사유체계의 발현자로 간주, 이를 통합된 존재로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한다(김민자, 1998). 즉, 이원적 대립의 해체를 통해 다원적 특질을 보이며, 모방(parody)·혼성모방(Pastiche)을 통한 장르의 붕괴·혼합 및 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각 장르의 형식을 결합시킨다(조정미, 2003). 이와 함께 해체주의는 형이상학이라 불리는 철학적 사유에 대한 비판으로 데리다(J. Derrida)의 텍스트 세계에서는 모든 요소들이 끊임없이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반복하므로 어떤 개체도 고정되거나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즉, 해체철학은 실체론적 존재를 거부, 모두가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상생원리를 가르치는데, 러시아의 비평가 미일 바흐는 공존재(Co-being)의 개념을 빌어 교류와 협력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박경일, 2002). 즉, 해체주의의 무원칙적, 비논리적, 혼돈, 모호성에 의해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성의 특성이 예술에 표현되는 것이다.

(3) 동양적 미의식의 수용

자연과 인간 및 정신과 육체의 분리 등 이분법적 사고체계를 갖는 서양미학은 기하학·수리학 기초한 절대적 가치와 객관주의를 중심으로 완전미, 정형미, 형식미를 추구해왔다. 반면 자연과 인간, 육체와 정신의 통합을 추구해 온 동양 미학은 이분법적 기준을 초월해 모든 대상을 상대적·주관적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불완전, 무형식, 무계획, 무기교의 미를 추구하는데, 이는 도(道), 무(無), 공(空), 허(虛)로 이어지는 도교·불교 바탕으로 하는 동양 미학과도 연관된다. 즉, 서양 미학에서 추의 미학으로 인식되어온 불형식성, 부정확성, 변

형의 미적 특성을 해롤드 코다(Harold Koda)는 불규칙(Irregularity), 불완전(Imperfection), 비대칭(Asymmetry)이라는 일본 미학의 본질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일본의 반꾸밈 미학을 선(禪)철학을 바탕으로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낸 후 떠오르는 미적 이념으로 설명하는데, 가즈히로 세이지마(濳廣正島)는 일본의 불규칙적이고 불투명한 아름다움을 추함의 미와 동일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단, 서양의 미추에 대한 이분법적 체계에서 추의 미적 가치로의 인식 전환이 18세기경인데 반해 일본은 상고시대부터 추에 대한 미적 가치로서의 인식의 사유가 존재하였고(채금석, 2004), 일본 반꾸밈의 비균제미가 한국의 전통 대기인 막사발을 통해서도 전래된 점을 볼 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한국에도 이미 정제된 것과 정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화된 미의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동양의 꾸미지 않은 미의식은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이너에 영향을 미쳐 패션에 있어 불균형, 비대칭, 불규칙, 비정형적 특성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현대패션에 나타난 Anti Mode가 유럽 내에서의 저항적 요소와 팝아트, 펑크 등 하위문화적 요소의 수용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동양의 선철학에 의한 절제미와 꾸미지 않은 미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2보>>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III. 현대패션의 Anti Couture 경향

시대적 조류에 따라 변화해 온 Anti Couture는 탈중심적, 절충적, 다문화적 현상과의 연관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과거의 고상함·우아함 상징에서 하위문화 및 대중성과의 결합이라는 일탈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움(Novelty)을 지향하고 있다. 먼저 Haute Couture에 나타난 Anti적 경향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도출해 보면 <표 3>과 같으며,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21세기 Haute Couture는 정제된 라인과 우아한 정형미의 추구와는 달리 미국(민속)성, 복고성, 역사성, 절충성, 혼성성, 이질성이라는 Cross-Over적 경향과 퇴폐성, 해학성, 혐오성, 왜곡이라는 반미적·전위적 성향 등 Anti Couture적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Haute Couture에 나타난 극도로 절제된 표현이나 빈곤미는 본질만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을 모두 생략해버린 동양 선(禪)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서양의 모더니즘과 차이를 보인다.

<표 3> Haute Couture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논 제	Haute Couture 패션경향	Anti Couture적 특성
김양희, 박선경 (2002)	오뜨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테카당스적 특성 연구	성적 퇴폐, 이상성, 냉소, 극도의 기교	퇴폐성, 왜곡, 해체파괴, 이질성
김선영, 임영자 (2001)	오뜨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 연구	역동성, 절충성, 복고성, 민속성	절충성, 복고성, 민속성
김선영 (2007)	크리스티앙 라크루와와 오뜨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역사성, 민속성, 혼성성	역사성, 민속성, 혼성성
김선영 (2006)	Jean Paul Gaultier의 Haute Couture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고정관념의 해체, 퇴폐성, 절충성	해체성, 퇴폐성, 절충성
박선희, 임영자 (2007)	오뜨꾸뛰르 컬렉션에서 본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에스닉, 레트로, 오브제, 그로테스크	이국(민속)성, 해학성, 혐오성

1) 절충적 경향

유·불·도교를 근간으로 하는 동양 철학은 주객을 분리하는 실재의 2원론적 세계관 대신 우주 내의 일체현상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텍스트 안의 요소들은 끝없이 다른 요소들과 관계 짓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개체의 주체성이 부정되는 탈구조적 특성을 갖는다(박경일, 2002). 패션에서는 동·서, 과거·현재, 남·녀, 빈·부 등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의 기준을 해체·초월하여 각각의 개념을 교차·절충·통합시킨 다원적 경향이나 나아가 각각의 특징을 변형·왜곡시킴으로써 하이브리드적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이는 독립적으로 병치하던 요소들이 상생(相生)하는 공존재를 암시할 뿐 아니라 대립 개념을 연결해주는 동양의 연속과 통합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1)>은 인체의 형태를 무시한 동양의 평면재단법에 실크소재를 과장되게 중첩시켜 일본의 12장속의 눈속임기법을 응용하였으며, 남미 원주민의 황토빛 채색과 헤드 드레스를 믹스하여 다국적 이미지의 Cross-over적 경향을 보인다. <그림 2(2)>는 1960년대 히피 스타일을 재해석한 복고풍의 진홍색 꽃무늬 드

레스로 속이 비치는 소재의 비대칭적 실루엣과 과도한 디테일로 자연과 자유를 추구한 히피정신은 상실한 채 산만한 이미지를 풍긴다. <그림 2(3)>은 흰색 쉬폰 블라우스와 풍성한 스커트, 딱딱한 이미지의 남색 블레이저(Blazer)를 겹쳐 양성이 절충된 모습을 보이거나, 완벽하게 피팅된 모습이 아닌 마네킹에 옷을 걸쳐놓은 듯한 엉성한 모습을 보이며, 메이크업의 색사용은 최대한 자제하여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이 외에도 절충·통합적 경향은 특정 시대와 국가적 이미지를 절충시킨 복고적, 역사적, 이국적 경향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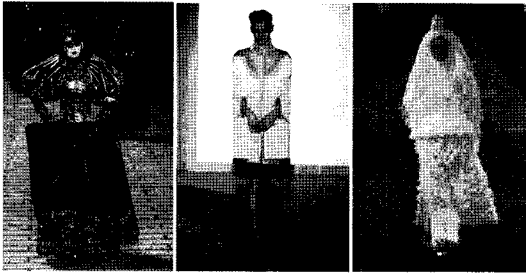
2) 해학적 경향

희극적 미란 기대된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양적·질적 모순에 근거한 미로 객관적·논리적 유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통의 거부를 은유적인 풍자로 묘사함을 뜻하며, 일상적인 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변형·모순·부조화 등 기존의 미적 규범과 상반된 기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장애란, 2006). 특히 판소리, 탈춤, 민화, 막사발 등 격식이나 틀을 거부한 왜곡된 표현방식이나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한국인의 낙천적 기질의 과격성에서 이러한 해학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패션에서는 정확한 수치 측정에 따른 전통적 구성법을 무시하거나, 추의 개념을 도입하여 Haute Couture의 품격을 상실하는 등 의외적 익살스러움을 유도함으로써 틀에 얽매인 사고보다 무계획의 자유분방함을 지향해 온 동양의 열린 사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3(1)>은 인체의 형태를 무시하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크리놀린드레스와 양다리(Leg of mutton) 소매를 변형, 그로테스크한 핑크 메이크업과 믹스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2)>는 의복의 기본적인 구성법을 무시, 팔의 움직임에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부자연스러움을 연출함으로써 의외적인 조소를 유도



(1) Christian Dior, 2003 F/W (2) Elie Saab, 2003 F/W (3) J. P. Gaultier, 2006 S/S

<그림 2> 절충적 경향



(1) Christian Dior, 2006 F/W (2) Valentino, 2008 F/W (3) Chanel, 2007 F/W

<그림 3> 해학적 경향

한다. <그림 3(3)>은 깃털소재의 드레스에 얼굴부위만 노출시킨 멕시코 오악사카(Oaxaca)지역 여성들의 헤드 드레스(유태순 외, 2006)형태이나 선글라스를 더함으로써 극도로 부조화된 Fun Couture적 경향을 보인다.

3) 전위적 경향

각 영역의 해체를 통한 자유로움의 추구는 다양성과 신비성 및 민족적 순수성, 야수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토속 신앙인 샤머니즘 사상을 배경으로(최준식, 2000) 접근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각 장르 및 대립 개념의 엄격한 구분에서 해방되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패션에서는 여러 예술사조를 혼용·변형 의외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실험적 경향으로 인상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 팝아트(Pop Art), 키네틱아트(Kinetic Art) 등 다양한 회화작품이나 조형적 특성을 도입해 Avant-garde적 이미지를 양산한다. 특히 패션에 있어 이질적 요소 및 장르의 병치를 뜻하는 키치나 플라쥬 기법을 적극 수용한 Art Couture적 경향은 정신적 긴장감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심리적 해방감을 통해 본연의 감성세계를 찾도록 하는 한국 미학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며, 다양한 천을 이어 붙인 조각보의 조합에서도 이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1)>은 만화를 그려 넣은 듯한 팝아트적 분위기의 혈령한 배기팬츠와 이와 대조적인 레이스장식의 할터넥(Halter neck)과 망사 스타킹을 상의로 착의하여 부조화의 조화를 유도하며,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을 더해 퇴폐적 아방가르드를 보여준다. <그림 4(2)>은 좌우비대칭의 벌룬 소매 드레스에 추상회화 기법의 텍스타일과 깃털이 불규칙적으로 트리밍되어 극도로 산만한 초현실적 예술작품의



(1) Christian Dior, 2003 F/W (2) Ch. Lacroix, 2007 S/S (3) Chanel, 2008 F/W

<그림 4> 전위적 경향

성향을 보인다. <그림 4(3)>는 심플한 시스(Sheath) 드레스에 이질감이 느껴지는 투톤의 막대장식을 플라쥬 기법으로 표면에 매달아 장식적 디테일로서의 한계를 초월한 실험정신과 신비로움을 엿볼 수 있다.

4) 빈곤적 경향

인간의 기교를 뛰어넘어 일탈로 이어지는 무심(無心)의 미학을 구현한 것으로 질서가 있기 전인 혼돈의 원시상태이자 소박한 파괴의 미라 할 수 있다. 패션에 있어 부(富)를 상징하는 요소를 버리고, 절제·간소, 나아가 빈곤해보이도록 가장하는 역설적인 스타일로 핑크를 비롯해 거리 문화의 파괴적·공격적 성향을 적극 수용한 Punkature(염혜정, 1998) style 또는 누더기와 같은 빈티지 느낌으로 기존의 고급스럽고 정교한 Haute Couture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추구한다. 이는 저급하게 여겨지던 하위문화의 추 개념을 하이패션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과시적 빈곤이자 미추의 구분을 초월한 동양의 일원론적 관점의 미의식과 통한다 할 수 있다.

<그림 5(1)>은 불규칙적인 주름의 풍성한 쉬폰 드레스와 상의가 가죽소재로 찢겨지듯 덧대져 지나치게 산만한 파괴적 디자인으로 붉은 기운이 감도는 메이크업과 머리 전체를 검정 레이스로 감싸 음산한 분위기를 더한다. <그림 5(2)>는 바지 중심선을 따라 슬래쉬(Slash)를 넣은 핑크적인 디테일과 모히칸 헤어스타일 및 눈 주변을 검게 칠한 핑크 메이크업으로 하위문화적 요소를 수용한 Poor Couture적 경향을 보인다. <그림 5(3)>은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인 진(Jean)을 여러 가닥으로 울을 풀어 너털하게 엮은 후 트레인처럼 끌리도록 하고, 가슴이 아슬아슬하게 가려지도록 하여 성에 대한 해방감과 저항적 상징을 은유적으로 묘사하였다.



(1) Christian Dior, 2006 S/S (2) Givenchy, 2002 F/W (3) J. P. Gaultier, 2006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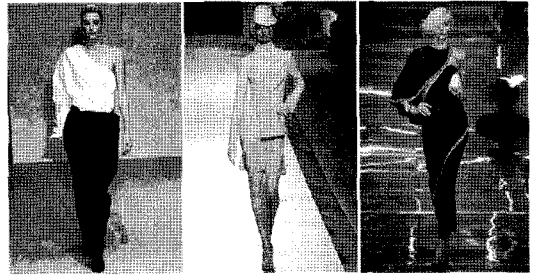
<그림 5> 빈곤적 경향

5) 절제적 경향

화사하게 꾸미는 것보다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는 우리 민족의 감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氣)의 순환과 정신을 증시하는 사유체계는 인간, 자연, 우주와의 교류를 위해 비워놓는 허, 공의 심오한 가치이자 비대칭, 불균형에 의한 파형의 미를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진민, 김민자, 2006). 동양화를 비롯해 건축과 미술에서는 여백이 솔리드 대상물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유현준, 2008), 이는 절제를 통해 허의 여백을 추구하고, 나아가 비움으로써 채울 수 있는 가능태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디자인에 있어 느슨한 재단이나 무채색 위주의 색 사용 등 장식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Haute Couture의 정교한 우아함이나 장식성과 극단적 대조를 이루는 경향으로 기본적인 구성요소마저도 삭제·은폐시킴으로써 디자인을 변질 또는 재구성한 Minimal Couture적 특성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림 6(1)>은 디테일을 모두 배제, 흰 셔츠의 한 쪽



(1) A.Valérie Hash, 2003 S/S (2) J. P. Gaultier, 2003 F/W (3) Armani Prive, 2008 F/W

<그림 6> 절제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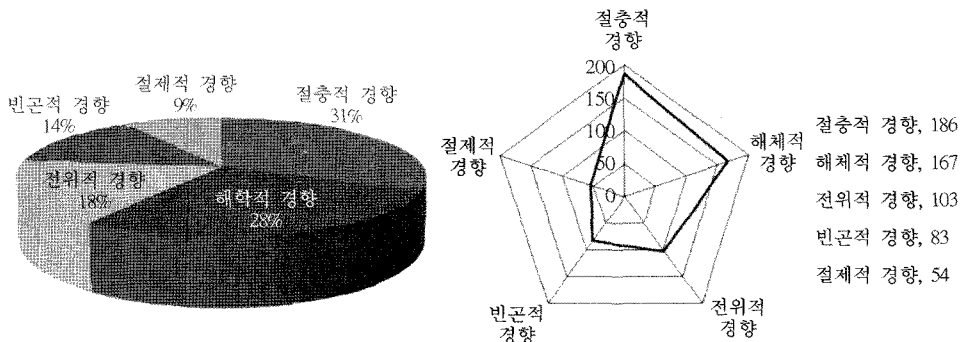
소매를 제거·변형시킴으로써 구성에 있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거나 새로운 조형의지를 야기시킨다. <그림 6(2)>는 원피스, 재킷, 장갑, 슈즈, 모자 전체를 흰색으로 통일시켜 모호한 이미지를 풍기는데, 한쪽 어깨에만 걸쳐진 재킷은 익살스러우면서도 미완성된 불균형적 느낌을 준다. <그림 6(3)>은 디테일을 최대한 자제, 한 장의 검정 옷감을 사선 방향으로 배치하여 인체 본래의 모습은 무시한 채 비정형적인 실루엣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Haute Couture에 나타난 Anti Couture적 경향과 빈도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으며, 디자인 특징과 표현방식을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Anti Couture 경향의 미적 특성

1. 모호성

최근 새로운 장르간의 시도가 증가하면서 독자적

<표 4> Anti Couture 경향 빈도



<표 5> 현대패션의 Anti Couture 경향

패션경향	디자인 특징	표현방식
절충적 경향	국가, 시대, 성(性)을 절충통합하는 Cross Couture적 경향	이국성, 역사성, 혼성성
해학적 경향	극도의 기교 및 과장에 따른 Fun Couture적 경향	과장성, 회화성, 저급성, 해체성, 비정상성
전위적 경향	예술사조를 혼용, 변형하는 Art Couture적 경향	다양성, 복제성, 초월성
빈곤적 경향	파괴적·하위문화적 성향의 Poor Couture적 경향	대중성, 저급성, 파괴성, 퇴폐성, 비구조성
절제적 경향	장식적 요소를 극도로 배제한 Minimal Couture적 경향	비장식성, 축소성, 단순성

인 개념 추구보다는 상호침투에 의한 다양성 및 이에 따른 모호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적·시간적·역사적·성적·계층적 측면에 있어 상호 양립·대립적 교차시킨 Cross-over적 경향은 패션을 비롯해 문화 다방면에 있어 퓨전 및 하이브리드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타문화·다문화이미지와 역사적 요소의 시공간적 절충, 남녀의 양성 공유 및 성의 변형·왜곡 등 절충적 패션이 Anti Couture 패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과거 이분법적 개념 구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원론적·비선형적 이미지를 이끌어내려는 무한한 창조 욕구와 타자에 대한 상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유·불·도교의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하며, 이윤배반적 이미지의 무제한적 수용에 따라 본래의 개념이 희석되고 모호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물형식성

Haute Couture의 고품격을 상실한 채 극도의 기교와 과장을 통한 유머와 아이러니를 추구함으로써 익살미와 기상천외함을 표출하는 것으로 인체의 형태를 무시·기존의 재단 및 구성법을 탈피해 불균형의 미를 시도하거나 반미 개념의 추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비정상적 이미지를 추구한다. 이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상생원리 및 각 영역간의 자유분방함을 추구해온 동양 미학의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는데, 이미지의 무제한적 결합이나 이질적인 소재 및 아이템을 플라주 기법을 이용해 불규칙하게 적용함으로써 의외적 기발함을 추구하며 나아가 패션의 기본 기능 및 전통적 미의 개념을 변질·왜곡시킨다.

3. 탈경계성

기존 각 장르의 경계를 초월, 주변의 여러 예술사조로부터 모티브를 끌어와 패션과 접목시키는 파괴

적 성향의 아방가르드로 패션에 있어 불완전, 비정형의 실험적·전위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반된 개념들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모든 대상을 자유자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空)사상과 틀에 얽매인 기준보다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도교, 다양성과 신비성을 추구해온 한국 무교 등 틀을 거부하는 한국인의 예술정신에서 엿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초현실적·미래적 성향의 예술을 패션에 접목시켜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특징으로 미술과 건축을 비롯해 다양한 조형예술로 확대됨으로써 의외성을 유발,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4. 탈중심성

비주류의 저항적·반사회적 하위문화가 상향 전파되고, 기존 정형미의 범주 밖에 있던 추의 미와 동양의 반구미의 미가 패션에 적극 수용된 의도적인 빈곤미를 의미한다. 특히 1970년 일본의 네오 포바티즘에서 1980년대로 이어지는 Poor look은 조잡하고 낡거나 초라한 패션으로 기존의 모든 법칙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부정·거부·왜곡하는 해체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정교함과 우아함을 버리고 일탈로 이어지는 파괴의 미이자 절제를 초월한 역설적인 빈곤미로 공격적·퇴폐적 이미지와 절충되어 성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등 규정된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무제한적 표현을 추구하려는 동양의 자유조형의지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5. 탈기교성

Haute Couture의 정제된 실루엣과 구성요소 및 장식성과 극단적 대조를 이루는 축소 지향적·비장식성의 Minimalism적 경향으로 기본적 구성요소마저도 무시·축소·생략해버림으로써 인체를 왜곡시키는 극소주의의 공허미를 추구한다. 주로 형태를 축소·은폐시켜 규정된 형식에서 탈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표 6> Anti Couture 패션경향의 미적 특성

패션경향	내용	미적 특성
절충적 경향	이율배반적 이미지의 무제한적 수용을 통한 다원론적 비선형적 이미지 추구	모호성
해학적 경향	인체의 형태 무시·기존 구성법을 탈피한 불균형의 미와 비정상적 이미지 추구	불형식성
전위적 경향	각 장르의 경계 초월, 각 예술사조의 특징을 차용·변형·굴곡시켜 의외적 이미지 생산	탈경계성
빈곤적 경향	비주류, 저급문화의 빈곤적 이미지나 공격적·퇴폐적 이미지의 무제한적 수용	탈중심성
절제적 경향	기본 구성요소의 무시·축소·생략으로 인체를 왜곡시키는 극소주의적 공허미 추구	탈기교성

현대사회의 혼란과 불안함에서 벗어나려는 정신적 측면이 강조된 동양의 선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패션에서의 복잡함, 과장됨, 화려함을 버리고, 순수하고 단순한 본질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서양의 미니멀리즘 경향과 함께 함께 현대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Anti Couture 경향의 패션에 내재된 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패션의 다원적·해체적·절충적 경향이 기존 서양 철학에 의한 이분법적 대립 구도나 과거 이성 중심의 닫힌 개념이 아닌 이성과 감성이 어우러진 열린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nti Couture는 20세기 중반 이후 Haute Couture 산업의 침체와 반미학적 개념의 수용·통합적 가치체계의로의 전환을 이끈 시대적 패러다임 및 동양적 미의식의 수용으로 발생했으며, 디자인에 있어 기존의 전통구성법과 기능 무시·전위성 부여 또는 저항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Couture이자 일본패션에 나타난 불균형, 부조화, 비대칭, 부정형, 불완전, 불규칙성 등의 반꾸밈의 미를 특징으로 한다.

둘째, 21세기 Haute Couture에 나타난 Anti Couture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패션사진 600여점을 선별, 그 특징을 분석한 결과 동·서, 과거·현재, 남·녀 등 이분법적 개념이 Cross-over된 절충적 경향(31%), 전통 구성법을 무시하거나 추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의외적 놀라움과 웃음을 유도하는 해학적 경향(28%), 여러 예술사조를 혼용·변형시켜 비일상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전위적 경향(18%), 거리 하위문화의 파괴적·공격적 성향을 수용한 빈곤적 경향(14%), 장식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Haute Couture의 정제된 장식성과 극단적 대조를 이루는 절제적 경향(9%)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셋째, 안티꾸뛰르의 이러한 경향은 각각 모호성, 불형식성, 탈경계성, 탈중심성, 탈기교성의 미적 특성을 지니는데, 절충적 경향은 이율배반적 이미지의 무제한적 수용에 따른 다원적 모호성으로, 해학적 경향은 인체형태와 기존 구성법을 무시한 불균형의 왜곡된 불형식성으로, 전위적 경향은 각각의 장르를 차용·변형시킨 탈경계성으로, 빈곤적 경향은 비주류 저급문화의 공격적·퇴폐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탈중심성으로, 절제적 경향은 기본적 구성요소를 무시·축소·생략함으로써 인체를 은폐시킨 극소주의의 탈기교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추의 재인식을 통해 부정적인 미를 긍정적인 미적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적 가치의 전환을 시도한 서양과 달리 동양은 태초부터 미추가 공존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뿐 아니라 Anti적 개념이 이미 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동양의 양립적·통합적 사고체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모든 개체는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지속해간다는 해체주의의 관계 지향적 측면과 탈중심화 및 대중주의를 핵심 명제로 각 장르의 결합을 통해 다원적 특질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이 이미 동양의 철학과 미학에 잠재되어있음을 볼 때, 서양에서 미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Anti Couture의 미적 특성이 동양의 꾸미지 않은 미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물의 가치가 고정된 것이 아닌 상호작용에 의해 무단히 변화한다는 상호존적·상대적·상생적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해석이 난해한 패션의 다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전 영역을 넘어 패션의 모호성과 불확정성을 포함한다 하겠다.

참고문헌

공미선, 채금석. (2003). Christian Dior 오뜨꾸뛰르의 디자

- 인 오리지널리티. *복식*, 53(2), 57-70.
- 김경란. (2004).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패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복식*, 37, 103-118.
- 김선영. (2006). Jean Paul Gaultier의 Haute Couture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4(4), 1-9.
- 김선영. (2007). 크리스티앙 라크루와와 오프뚜튀르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복식문화연구*, 15(2), 11-21.
- 김선영, 임영자. (2001). 오프뚜튀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 연구. *복식*, 51(6), 147-165.
- 김양희, 박선경. (2002). 오프뚜튀르 컬렉션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특성 연구. *복식*, 52(8), 73-85.
- 다니엘라쿠르트. (2001). *예술사관 무엇인가*. 정장진 역 (2007). 서울: 미메시스.
- 민원경. (2002).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일. (2002). 동과 서의 발라드: 오리엔탈리즘의 환상을 넘어서. *동서비교문화저널*, 6, 69-70.
- 박선희, 임영자. (2007). 오프뚜튀르 컬렉션에서 본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57(1), 83-92.
- 염혜정. (1998). 비비안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복식*, 37, 71-88.
- 유태순, 조기여, 김영란, 정윤희, 황윤정, 조은영, 김현희. (2006). *세계민속의상의 이해*. 서울: 신정.
- 유현준. (2008). *모더니즘 -동서양 문화의 하이브리드*. 서울: 미세움.
- 이진민, 김민자. (2006). 동양 미학적 관점에 의한 한, 일 여성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고찰. *복식*, 56(5), 132-149.
- 이혜현.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카오스적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은혁, 김민자. (2003). 199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3(3), 13-30.
- 장애란. (2006). John Galliano 작품에 표현된 웃음의 미학. *복식*, 56(3), 129-142.
- 정진영. (2002). *벨기에 패션디자인의 반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미. (2003).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11(6), 135-137.
- 채금석. (2002).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 채금석. (2004).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복식*, 54(8), 129-146.
- 채금석, 千村典生. (2003). *세계패션의 흐름*. 서울: 지구문화사.
- 최준식. (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서울: 효형출판.
- Caroline, E., & Minna, T. (1989). *Women & Fashion*. London: Curatet Books.